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сахалиннун сахэ политикшинун <hr/>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p>새고려신문</p>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21년 6월 11일(금) (윤력 5월 2일) Пятница 11 июня 2021г. № 23 (11940)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	---



▲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이다. 이날 сахалин에서 다양한 공연과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이예식 기자 사진첩에서)

6월 12일은 러시아의 날 친애하는 сахалин 및 쿠릴 주민 여러분!

러시아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이 날은 역사는 짧지만 가장 의미 있는 명절 중 하나입니다.

1990년 6월 12일,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주권에 관한 선언문이 서명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은 러시아의 민주 발전 경로를 규정했고, 러시아 역사의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업적과 승리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기 위한 견고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이 일에 сахалин 지역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제 강화와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및 사회 시설을 건설하고, 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는 сахалин과 쿠릴 열도를 더욱 편안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미래는 우리 개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동향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힘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번영을 기원합니다! 즐거운 명절 되세요!

сахалин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부총리, сахалин주지사 지역 주택 건설 문제 논의

сахалин 주는 2017년 1월 1일 이후 노후주택에서 사람들을 이주시키고 신축 주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장 먼저 시작한 러시아 지역 중 하나이다. 연초부터 сахалин 주민 785명이 이미 새 집에 입주했다. 이 정보는 러시아 연방의 마라트 후스놀린 부총리가 сахалин 주 알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와의 가진 만남에서 발표되었다.

"2021~2026년 프로그램에 따르면 신축 아파트에 2만9000명이 입주해야 한다. 64만 m2가 넘는 노후아파트에서 새 주택으로 빠른 속도로 이사 시킬 계획이다. сахалин 및 쿠릴 주민을 위한 이 중요한 문제해결에 연방 정부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주지사가 말했다.

새 주택으로의 이주 프로그램(신축 주택 건설)에 613억 루블리를 할당할 계획인데, 이 중 연방예산에서 180억 루블리, сахалин주 통합예산에서 189억 루블리, 추경예산 244억 루블리가 추가로 지원된다.

최근에 сахалин과 쿠릴 열도의 주택 건설 속도가 빨라졌다. 2020년에는 43만m2의 주택을 신축하였고, 이는 2019년보다 10만m2더 많다. 평방미터당 비용을 줄이기 위해, '극동모기지', '2020 국가 지원 모기지', '농촌 모기지'라는 유리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 현재까지 сахалин과 쿠릴 주민들은 총 113억 루블리에 달하는 2,343건의 대출을 받았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의 "우윤", "라두즈니", "가란트" 등 주택 개발을 위한 토지 매입이 준비되었다. 이곳에는 70만m2의 주택을 건설할 전망이며, 주택 건설 현장들에 제반 시설을 제공할 계획이다.

만남의 자리에서 부총리와 주지사는 '안전하고 견고한 도로' 국가계획 실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2021년에는 16.2km의 도로를 현대화할 계획이며, 아스팔트는 13만7200 m²를 포함할 계획이다.

국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작업하는 것 외에도, сахалин의 도로에 대규모 보수가 시작되었다. 올해, сахалин 지역의 도로 유지·보수에 대한 기금은 2억 5천만 루블리에서 15억 루블리까지 총 6배나 증가했다.

(주정부 정보정책국 보도자료에서)

단신

아나톨리 추바이스, сахалин 방문

сахалин을 방문한 국제기구와의 연계 러시아대통령 특별 대표 아나톨리 추바이스는 지난 6월 8일 сахалин 주의 저탄소 규제 및 기후 프로젝트에 관한 컨퍼런스에 참가하였다. 특별 대표와 함께 <로스나노> 회와 세계 은행 러시아 연방 지부 대표단이 сахалин을 방문하여 대회에 참가하였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2025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сахалин주 정부의 발의와 기업들의 계획들이 소개되었다.

6월 9일에는 대표단이 сахалин 지역의 탄소 폴리곤에 방문하여 온실 가스 흡수량의 계산과 분석에 대한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방문은 сахалин 주 프로젝트 추진과 연방 및 글로벌 차원의 경험 교류를 위한 것이라고 сахалин 주 언론부에서 보도했다.

러시아의 날 기념행사

6월 12일, 러시아의 날에 сахалин에서는 다양한 공연과 기념행사가 펼쳐진다.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는 각기 다른 장소에서 행사가 열린다. 러시아의 날을 기념하는 가장 큰 플래시몹 '우리는 러시아다'가 유즈노сахалин스크에서 열릴 것이다.

1,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행사에 참여할 것이다. 주최측은 참가자들에게 좌표를 전달하여 가장 큰 러시아 연방의 지도를 сахалин에 그려낼 계획이다. 참가자들은 정오에 승리 광장에 모일 것이다.

부렌코브 스포츠부 장관 사임

сахалин주 스포츠부 세르게이 부렌코브 장관이 사임한다는 의사를 지난 10일 발표했다. 그는 2017년 5월 부터 장관으로 일했다.

주스포츠부 장관 대행 아르쎬 폼시발로브 차관이 맡을 것이라고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сахалин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сахалин주는 몇 개월동안 코로나19 상태가 나아지고 새 확진자 수도 많이 감소된 가운데 하루 최대 확진자 수는 15-20명이었다.

그러나 여름이 시작되면서 신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6월 6일 코로나19 신 확진자 수가 40여명에 달했고, 6월 9일에는 확진 사실이 63건이었다.

이와 관련, 여러 원인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름철이 되면서 сахалин에 이민노동자 유입의 증가로 보고 있다.

이날 지표를 보면 сахалин주에는 확진 23,346건, 퇴원22,717명, 사망57명, 572명이 치료중이다.

현재 백신 접종은 8만516명이 받았는데 그중 2차 접종은 6만8,767명이 마쳤고, 백신접종신청은 4만4,103명이 했다고 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새고려신문	<h2>2021년 하반기 신문주문 시작</h2>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сахалин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49루블리 36코페이카 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ИП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러시아의 날은 어떤 날이고 어떻게 보낼 것인가요?

장 엘리자베타 [23세, 대중 전문가]:

저에게는 러시아의 날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애국심과 단결을 상징하는 날입니다. 러시아가 현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 나라가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이 명절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일기예보에 따르면 올해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 날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김 안드레이 [44세, 기업인 현재 한국에 거주]:

러시아의 날은 제 모국의 날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러시아에서 살진 않았지만 러시아는 제가 좋아하는 고향입니다. 이 날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김 알렉산드라 [46세, 회사원, 두 학생의 어머니]:

러시아의 날은 가족과 함께 공원이나 향토박물관에 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박물관에도 가볼 수 있습니다. 이 곳 분위기 자체가 역사적인 흥미로운 사건을 주제로 대화하기 좋거든요. 러시아 역사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서 박물관 가이드는 우리를 역사속에 깊이 몰입 시킵니다. 우리 조상들이 러시아 사할린에 오게 되고, 현재 우리는 러시아인으로 살고 있습니

다. 이것도 역사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역사도 살펴볼 기회가 되고 아이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 대해서, 인간 관계에 대해서, 전통과 조상, 문화 등 모두 좋은 이야기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이죠. 미래의 세대에게 애국심도 심어야 합니다.

보구 탈라[박성욱] [교사, 59세]:

러시아의 날은 우선 가족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이 날에는 친척, 친지, 친구들에게 연락하고 축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죠.

올해에는 제가 교장 자격으로 <사할린 마야크(등대)>주지사 상 시상식에 초대되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제1김나지아가 <미래의 교육>부문에서 일반교육기관으로써 최우수상을 받았거든요. 코로나19 사태로 시상식이 계속 미루어져 이번예야 상을 받게 되었네요.

오 알렉산드라 [39세, 회사원]:

러시아 날은 저에게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하는 날입니다. 휴일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인대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는 음식을 만끽하고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시간!

러시아 날을 축하드리며, 서로 칭찬하고 아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이 올라 [58세, 미술박물관 연구전문가]:

러시아의 날은 새 러시아, 새 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에는 친척, 친구들과 만나서 우리 아름다운 도시, 공원에서 산책할 계획입니다.

좋은 날씨를 기대합니다!

김 제니스 [39세, 태권도 사범]:

러시아의 날은 명절이죠. 저는 이날 일합니다. 스포츠학교에서 훈련이 있고 또 우리 애들이 러시아 날 행사에서 시범을 보여 줍니다.

전경자 [60세, 연금자]:

러시아의 날은 휴일입니다. 저는 이날 친구들과 만나 즐겁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날은 제가 사랑하는 조카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또한 제 삶에 '춤의 세계'(평생교육 차원에서 무용을 배우고 있음. - 기자주)가 생긴 이상, 이 날은 러시아 호로보드(러시아 전통 춤, 한국의 강강술래와 비슷함)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번 6월 12일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시공원에서 12시부터 14시까지 공연을 합니다. 우리는 호로보드를 출것입니다. 응원하러 오십시오!

(배순신 기자)

사할린주한인협회, 정관 변경



지난 5일(토)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오전 11시 사할린주한인협회 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회의 주요 안건은 주한인협회 정관 변경 문제였다.

사할린주한인협회 박순욱 회장은 얼마전에 러시아 법무부 사할린관리국이 주한인협회의 활동 관련 서류를 검토 했는데 사회단체 관련법에 따라 협회 정관에 변경, 추가 사항을 기입해야 한다고 알렸다. 이와 관련해 협회에서 정관 변경팀을 만들고 주한인협회 오진하 고문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는 사할린주 두마 의원으로서 법안을 작성, 활동 한 바 있었다.

사할린주한인협회 정관은 1997년 10월에 채택되었고 그동안 3번 변경되었다.

오진하 고문은 이날 변경, 또는 추가 사항을 일일이 소개하고 왜 변경이 필요한지 자세히 설명했다. 운영위 위원들은 각 사항을 심의하고 투표했다. 특히 한인협회 가입 문제가 많은 관심을 끌었다. 개인 회원, 단체 사단법인 회원, 투표권 등등 운영위원들은 상세히 이 문제를 심의했다. 어떤 사항들의 추가 재작성은 정관 변경 그룹에 위탁하기도 했다.

정관은 한인협회 대표자회의(컨퍼런스)에서만 채택할 수 있으므로 이날 오후 바로 주한인협회 대표자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 대표로 41명이 선정되었는데 이 중 38명이 참석해 신속히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대다수가 운영위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정관 변경사항이 간단하게 소개되었고 추가 제안도 들어왔다. 회의는 재작성된 정관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채택하기로 했다.

기타 문제에 들어가서 회비 문제가 논의되었다. 여러 제안을 감안하여 1인당 1년 회비 100루블리로 정하기로 했다. 회비는 올 10월까지 거두기로 했다.

이날 김홍지 주한인협회 고문은 올해 사할린동포(1세) 유골봉환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한국 행정안전부는 러시아(사할린) 정부의 협력하에 올해는 16위를 봉환 하려는 계획이다. 봉환은 올 가을에 할 예정인데 코로나19사태로 이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다.

(취재: 배순신 기자)

이모저모

포르나이스크에서 마스레슬링 대회 개최

야쿠티아의 민족 스포츠인 러시아 마스레슬링 선수권 대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포르나이스크에서 열린다. 마스레슬링은 비접촉식 레슬링이다. 경기 규칙은 매우 간단하다. 선수들은 상대의 손에서 막대기를 빼앗아오거나 상대를 끌어오면 된다.

"약 50명의 선수들이 체중 90kg 이상 급에서 러시아 챔피언 타이틀을 두고 겨룰 것"이라고 '포르나이스카야 즈베즈다'지가 보도했다. 동 지에 따르면 대회 주최자는 사할린 마스레슬링 연맹이며 포르나이스크 시의 중앙 광장에서 열릴 것이다. 참가자들은 도시의 날 기념행사 때 특별히 준비된 장소에서 경쟁할 예정이다. 악천후의 경우, 대회는 '포르나이스크-아레나'체육·건강회복 복합시설에서 진행될 것이다.

챔피언대회 진행을 위해, 장려금 프로젝트 "성공을 향한 길"을 계획했다. 6월 5일 사할린 주 정부는 이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주예산에서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대회는 주정부 장려금과 주스포츠부, 구역 행정부와 '예지나야 러시아'당의 재정지원을 받아 치러진다.

В Поронайске пройдет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бесконтактному единоборству

В Поронайске с 20 по 22 августа пройдет чемпионат России по мас-рестлингу – национальному виду спорта Якутии. Это бесконтактное единоборство. Его правила очень просты: для победы спортсмену необходимо просто вырвать палку из рук или перетянуть соперника.

«Около 50 спортсменов будут оспаривать звание чемпиона России в абсолютной весовой категории - 90+ кг», – передает «Поронайская звезда». По информации издания, организатором состязаний выступ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федерация мас-рестлинга.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на центральной площади райцентра. Участники поборются на специальном помосте во время празднования Дня города. В случае непогоды мероприятие перенесут в ФОК «Поронайск-Арен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чемпионата был разработан грантовый проект «Путь к успеху». 5 июня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дтвердило победу проекта на регион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йдут как за счет грантовых средств, так и при финансовой поддержке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районн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партии «Единая Россия»

사할린 주민, 지역 역사 회의에 초대

주일반과학도서관의 '지역사 만남'문화계몽프로젝트가 6월 4일부터 '야외 도서관' 여름행사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전시회와 강연, 지역 역사에 대한 퀴즈, 보드 게임, 흥미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및 탐방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8월 27일까지 여름철 내내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악천후의 경우 행사는 도서관 실내에서 할 것이라고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의 홍보실이 보도하였다. 8 (4242) 45 25-37로 전화문의가 가능하다.

Сахалинцев зовут на краеведческие встречи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ий проект "Краеведческие встречи"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начал работу 4 июня в рамках летней площадки "Библиотека на открытом воздухе".

В программе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ыставки и тематические лекции, викторины и настольные игры по краеведению, встречи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и экскурсии. Время работы площадки — каждую пятницу (до 27 августа) с 11:00 до 16:00.

В случае неблагоприятных погодных условий мероприятия будут перенесены в помещение библиотеки,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СахОУНБ.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у 8 (4242) 45-25-37.

익스트림 스포츠팬, 산악자전거 수업에 초대

매년 열리는 익스트림 자전거스포츠 훈련이 <고르니 워즈 두흐>스포츠단지에서 시작되었다.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

스포츠에 도전할 수 있다.

사할린 익스트림 자전거 스포츠 클럽은 2018년에 설립되어 산악자전거 수업을 자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매주 일요일 12시, "고르니 워즈두흐"단지 하단부에서 무료 공개 훈련이 열린다. 수업 참여시 개인에게 장비 대여도 가능하다.

숙련된 강사들이 산악자전거, 워밍업, 건강검사의 이론적 토대를 설명한다. 특히 안전에 주의를 기울인다.

현재 '고르니 워즈두흐'단지를 기준으로 산악자전거의 난이도가 다른 5개의 사이클 노선이 있으며, 총 길이는 약 5km라고 사할린 주스포츠부에서 전했다.

참여신청을 하려면 인스타그램 계정 @sakhmtbe 또는 전화번호 +8 963-289-28-95로 미리 연락해야 한다. 경기일이 나 이벤트 진행일에는 공개 교육이 열리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은 클럽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Сахалинских любителей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спорта приглашают на занятия по маунтинбайку

Ежегод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о экстремальному велоспорту стартовали на склонах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Попробовать себя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а может любой желающий.

Сахалинский клуб экстремального велоспорта был создан в 2018 году и проводит занятия по маунтинбайку на общественных началах. Открытые бесплатные тренировки проходят по воскресеньям в 12:00 на нижней станции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На время занятий возможно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вентаря, который подбирают в индивидуальном порядке.

Опытные инструкторы рассказывают теоретические основы маунтинбайка, проводят разминку и техосмотр.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уделяется технике безопасности.

Сейчас на базе "Горного воздуха" есть пять действующих веломаршрутов разного уровня сложности для катания на горных велосипедах, общая протяженность которых порядка 5 км,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министерства спор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8면에 계속)

극동 항공사 9월까지 설립

안드레이 벨로우소브 러시아 정부 제1 부총리가 극동 항공사에 대한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러시아 연방 부총리이자 러시아 대통령 극동 연방관구 전권 대표 유리 트루트네프, 극동 및 북극 개발부 장관 알렉세이 체쿰코브, 사할린주지사 알레리 리마렌코, 캄차트카 주지사 블라디미르 솔로도브, 추코트카 자치변경 지사 로만 코핀, 오로라 항공사 대표 콘스탄틴 수호레브리크, 그리고 연방 및 지역 행정 당국 대표, 지역집행기관 대표와 여러 은행 대표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2021년 9월까지 극동항공사 설립을 위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극동 항공사의 금융 모델 형성의 주요 방식이 확정되었다. 승객의 항공료 책정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1년 극동연방관구의 중요 노선에서의 항공료 보조금 배분에 관한 법률 초안을 러시아 정부에 제출하라는 지침도 내려졌다고 사할린주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사할린 병원들에 신규 차량 지원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 중앙 지역 병원들에 새 차를 보내는 행사가 지난 8 일 열렸다. UAZ 패트리엇 차량 9대가 오하 중앙병원의 외래진료소(4대), 노글리키병원(3대), 우글고르스크 및 알렉산드롭스크-사할린스키 병원 각각 1대씩 보급되었다. 보건부는 올해 총 90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보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환자, 의사, 의약품 및 의료장비를 병원이나 실험실로 보내는 일반 운송을 위한 것이다.

외래진료소에 각종 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 차량 문제를 해결한 이후에도 지역에 구급차 부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차량 부족을 연방 프로그램 실시로 해결하려고 하며, 이에 따라 약 1,500대의 차량들이 연방 내 지역병원들에 전달되어야 한다.

사할린은 올해 첫 새 구급차를 지급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충남도, 도내 사할린 한인 초청 행사 강제이주 역사 재조명

충남도가 잊혀가는 사할린 한인의 강제 이주 역사를 재조명하고 러시아 극동지역 사할린주와의 지역외교 기틀을 다지기 위한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충남도는 2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내 사할린 한인들을 초청해 '도-러시아 극동지역 교류 협력 행사'를 개최했다.

양승조 지사와 도내 사할린 한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행사는 사진전, 사할린주 부지사 축하 영상, 사할린 동포 이야기, 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사할린 동포의 이주 역사와 삶을 들여보는 이야기 시간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극단 흥성무대가 공연한 사할린 한인의 애환과 희망을 담은 스토리텔링 극을 함께 관람했다.

부대행사로는 충남연구원의 '사할린 한인 역사 연구'의 자문을 맡을 명예연구자문위원 위촉식을 열고 권경석 전국사할린한인회장에 위촉패를 수여했다.

또 대한적십자사 충남지회가 행사에 참석한 사할린 한인 동포들을 위해 생활용품 지원했으며, 충남태권도협회가 충남의 역동적인 모습을 표현한 태권도 시범 공연을 선보였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우리 선조들은 일제에 의

해 강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야 했고 생전 처음 보는 낯선 땅에서 추위, 배고픔과 싸우며 강제노동을 견뎌야만 했다"면서 "해방을 맞이하고도 전쟁의 부조리 속에서 경계인의 삶을 보내야 했던 이러한 통탄과 슬픔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 지사는 "도내 거주하는 모든 도민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며 "사할린 한인들이 더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양 지사는 이날 행사 시작 전 사할린 한인 대표들과 만나 사할린 한인들의 생활에 대해 듣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으며, 도-러시아 교류 협력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도내에는 올해 5월 기준 218명의 사할린 한인이 천안·아산·서천 지역에 영주 귀국해 거주 중이다.

도는 현재 도내 사할린 한인들과 연계해 지역 청소년 대상 '사할린 한인 강제 이주 역사 특강'을 추진 중이며, 서천군노인복지관과 함께 '사할린 한인 이주 역사 사진전'을 기획해 도내 시군에 순회 전시하고 있다.

또 러시아 현지 자녀와의 교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러시아 사할린주정부와의 지역외교 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홍성=뉴시스]

푸틴 "북한 압박하고 제재 강화해선 북핵 문제 해결 안 돼"

"북에 안전 보장한뒤 인내심 갖고 접근해야" 관련국 수용 가능한 해법 촉구

러 국제경제포럼 뉴스통신사 대표회의서 발언 "러·중 양자협력 확대" 입장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북한 핵문제는 북한을 압박하고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제2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국제경제포럼(SPIEF)의 뉴스통신사 대표회의에 참석, 북핵 문제 해법을 묻는 조성부 연합 뉴스 사장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중요하다"면서도 "러시아는 핵확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고, 북한도 우리 입장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한 뒤 인내심과 조심스러운 태도를 가지고 접근해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해법은 북한을 질식사시키거나 더 많은 제재로 때리는 데에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최근 몇 년간 조금씩 비핵화를 위한 행보가 있었고, 북한 지도부가 건설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 후에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약속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포함해 모든 관련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북핵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웃 국가이며, 남·북·러 경제사업이라는 구상도 갖고 있다"면서 "유감스럽게도 이 사업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지만, 경제적 접근이 가능해지면 정치적으로도 (북핵 문제를) 해결할 여건이 조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푸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입장과 시기 등에 대한 질문에는 별도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남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을 놓고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일본과 평화조약 체결을 논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남쿠릴열도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 많이 바뀌었다"면서 "이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던 때도, 4개 섬 중 2개만 논의하던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4개 섬을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개정 헌법으로 인해 러시아 영토를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수는 없지만, 남쿠릴열도에서의 안전 보장 문제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에 남쿠릴열도를 돌려받으면 무기를 배치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면 명확히 대답을 안한다"면서 "역사적으로도 많은 이유로 파트너 관계를 갖는 국가인 만큼 어떻게든 협력을 해야 한다. 평화조약 체결에 관심을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과의 협력 관계는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러·중 관계는 전례 없는 수준으로 발전해왔다. 공통의 관심사가 많다"면서 "우선순위가 경제협력인데, 양국 간 교역 규모가 지난해 1천40억 달러를 기록했고, 2024년에는 2천억 달러 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아울러 항공우주 및 달 탐사, 원자력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경제뿐만 아니라 인적교류와 환경보호 분야의 협력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중국이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러시아도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안에서 통합 구상을 하고 있어 서로 잘 보완하는 입장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앞으로도 양자 협력을 활발히 하는 한편, 국제무대에서도 전 세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경제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날 통신사 대표회의는 화상으로 진행됐다.

한국 연합뉴스의 조성부 사장을 비롯해 일본 교도통신의 토루 미츠타니 사장, 중국 신화통신의 허핑 사장, 미국 AP 통신의 게리 프루잇 사장, 프랑스 AFP 통신의 파브리스 프라이스 사장, 영국 로이터 통신의 마이클 프라이덴버그 사장 등 주요국 16개 통신사 대표가 참석했다.

(출처: 연합뉴스)



연합뉴스 질문에 답하는 푸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일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 포럼 화상회의에 참석해 연합뉴스 조성부 사장이 질문한 북핵 문제와 관련한 러시아의 입장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2021.6.5 superdoo82@yna.co.kr

재외동포재단,

전세계 한글학교와 '찾동' 화상간담회 시행

'한글 세계화의 주역'인 한글학교 관계자들과 화상간담회 시행

미국 동부·캐나다(6.1),

미국 서부·중남미(6.8)를 시작으로 16일까지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성곤)은 6.8.(화), 미국서부와 중남미 지역 한글학교 관계자들과 함께 화상 간담회를 시행했다.

이번 간담회는 6.1.(화) 개최되었던 미국 동부·캐나다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찾아가는 동포재단(이하 찾동)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미주한국학교연합회(KOSAA), 캐나다한국학교총연합회, 중미카리브 한글학교협의회, 남미 한글학교협의회, 재멕시코한글학교협의회 등 지역별 한글학교 연합회 임원 및 한글학교 교장과 함께한 간담회에서, 지역현황과 애로사항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자들은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동포자녀들을 위한 주말 한글학교 수업이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한글학교가 전반적으로 온라인 수업으로의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남미 지역 참석자들은 중남미 지역이 코로나19 영향에서 아직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한글학교의 경우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토로하면서 재단의 지원과 배려를 요청했다.

김성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한글학교는 우리 동포자녀를 세계시민으로서 육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며, 여러 난관 속에서도 지금까지 노력해오신 교사 여러분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한글 세계화의 주역인 한글학교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은 6월16일까지 총 6차의 한글학교'찾동'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РК началась вакцинация от COVID-19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60 до 64 лет

7 июня в РК началась вакцинация от COVID-19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60 до 64 лет. Прививки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получают те, кто записался заблаговременно на сайте или по телефону.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3 июня, когда завершилась запись, 78,8% из 3 млн 950 тыс.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азванной возрастной категории записались на прививки.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запись завершилась,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от 60 до 74 лет могут получить прививки, забронировав оставшиеся дозы вакцин путём звонков в медицинские учреждения или с помощью мобильных приложений Naver и Kakao. Между тем, воспитатели детских садов, центров по уходу за детьми, учителя первого и второго классов начальных школ, которых планировалось привить вакциной AstraZeneca с 7 июня, будут прививать в июле вакциной Moderna.

KBS World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приглашены на 74-й Кан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3 июня отборочный комитет 74-го Кан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обновил список фильмов, которые будут показаны в этом году на всемирном киносмотре. Как сообщ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и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стиваля Тьерри Фремо н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в Париже, были просмотрены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ее 2.800 фильмов. Из них для различных разделов конкурса отобраны 65 картин, в том числе, 24 для конкурсной программы. На этот раз работы южнокорейских режиссёров не вошли в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тем не менее, два фильма приглашены на фестиваль. Фильм-катастрофа «Чрезвычайная ситуация» (비상선언/Emergency Declaration) режиссёра Хан Чжэ Рима включён во вне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Фильм «Перед твоим лицом» (당신 얼굴 앞에서/In Front of Your Face) в постановке известного режиссёра Хон Сан Су будет показан в категории «Каннские премьеры», учреждённой в этом году. 74-й Каннский кинофестиваль будет проходить с 6 по 17 июля.

KBS World

Продолжаем публикацию работ слушателей курсов "Пишем вместе".
Проба пера

Что произошло с Ларри?

Сказка – ложь,
да в ней намёк,
добрым молодцам урок.
А.С. Пушкин

В пятницу вечером после совещания у начальника Ларри зашёл в свой кабинет и стал собираться домой, к семье. Подойдя к окну, чтобы закрыть форточку, он увидел, как на улице моросит осенний дождь, зажигаются уличные фонари, редкие прохожие под зонтиками спешат по своим делам, а на стоянке последние автомобили сиротливо дожидались своих хозяев. Настроение у Ларри стало под стать погоде, также в голову лезли невеселые мрачные мысли, что ему расхотелось идти домой, не хотелось, чтобы жена и дочь видели его таким.

Он присел за свой рабочий стол, стал размышлять о своей жизни и семье. Ему казалось, что их жизнь идет по замкнутому кругу без остановок, без особых стрессов и приключений, и не видно было выхода из этого круговорота. Про себя он отметил, что очень редко, и даже забыл, когда в последний раз, делал такой анализ. Про себя он почти не думал, о дочери тоже мельком, но серьезно с особым вниманием призадумался о Джоанн.

Ведь они почт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кончили институт, поженились, начали трудовую деятельность, затем родилась дочь и с ее воспитанием ведение домашнего хозяйства незаметно перешло на ее плечи, и вопрос о ее выходе на работу как-то отпал.

И вот сейчас, находясь вне дома, он увидел в своей Джоанн эту сказочную Золушку, которая решает все вопросы и проблемы, происходящие в

Ро Ден Сен, 68 лет

их домашнем хозяйстве круглосуточно без выходов и перерывов, стараясь уложиться в семейный бюджет согласно заработной плате мужа.

Этой сказке о Золушке более 200 лет, и на Земле произошли большие технические и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зменения в лучшую сторону, но многое и осталось, особенно в жен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и в быту. Вспоминая этот черно-белый фильм, Ларри отметил, что веселое настроение и приятное воспоминание вызывает улыбка самой Золушки, которая несмотря на жизненные тяготы остается оптимисткой, притягивая своей улыбкой всех: и актеров, и зрителей.

А этого не наблюдалось у него дома, да и откуда им быть, ведь Ларри с женой, решая вопросы, чаще всего ругались и спорили. И он решил, что с этого дня будет дарить улыбку, т.к.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вышение зарплаты не обещалось, а о премии давно забыли.

А улыбка... В денежном выражении ничего не стоит, но дает много, она обогащает получателя, не обедняя того, кто ею одаривает, не тратится много времени, а запоминается и остается надолго в памяти.

Эта мысль, это открытие и решение так понравились ему самому, что он с настроением, но уже с приподнятым, отправился домой. И вот уже на улице он сказал себе: «Нет, это еще не все! В дополнение к улыбке скажу ей искренне слова одобрения и восхищения, которые она заслуживает своим кропотливым незаметным трудом. Не буду замечать и критиковать недостатки, но буду отмечать и восхвалять малейшие успехи!!!»

Вот вам и пример применения в повседневной жизни принципа «зеленого маркера» и «красного карандаша».

Открылся Центр памяти Станислава Тха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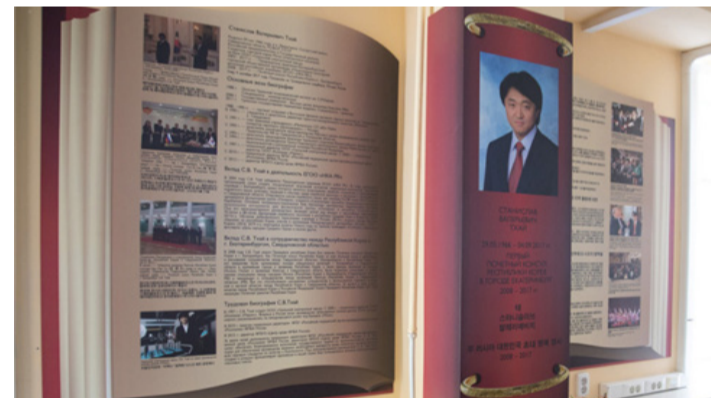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открыл на своей площадке Корейский науч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передает корреспондент ТАСС. Аудитории, где расположился центр, присвоено имя первого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Станислава Тхая.

«В наше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очень динамично развивается именно корейское направление. У нас 10 июня планируется защита магистерской диссертации на тему «Детская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XXI веке», это первая работа по корейской литературе в нашей практике, но мы надеемся на расширение темы», — сказал директор школы бакалавриата УрФУ Валерий Гудов на церемонии открытия.

Директор департамент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отношений Мария Гузикова в беседе с ТАСС отметила, что основная цель работы центра — преподав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занятия по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е, истории, политике, экономике. Также в центре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занятия с корейскими партнерами — университетами, научными группами —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и. Центр станет площадкой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овм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с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ой.

Центр открылся при содействии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Ураль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Игоря Самкаева.

Дипломат отметил большой вклад первого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Тхай С.В. и поздравил всех присутствующих с открытием центра. Особым подарком стало вручение сертификата на туристическую поездку 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 лучшему студенту-корейцу. В рамках мероприятия состоялось обсуждение запланированны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и культурных программ, прошел показ фильма о первом Почетном консуле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Как отметил Игорь Самкаев, южно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выражает интерес к российскому быту и культурной жизни: «Есть необходимость в развитии культурных отношений.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деляет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работе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й сфере». Уральский федераль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им вузом в Ураль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в нем обучаются 36 тыс. студентов. В 2021 году вуз является лидером по бюджетному приему в стране — абитуриентам доступно 7 500 мест. В УрФУ обучается более 4 300 иностранных студентов из 100 стран, действует более 10 лабораторий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ведущих зарубежных ученых.

Почетный консул сообщил также, что областной онкологический диспансер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и клиника «Северанс»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Свердловский онкоцентр плотно работает с клиникой «Северанс», здесь уже есть соглашение, меморандум заключили».

«Сейчас мы видим, что есть большая проблема у многих — это щитовидная железа. «Северанс» является мировым лидером по лечению щитовидной железы», — отметил консул. Смертность среди пациентов клиники находится на низком уровне благодаря ранней выявляемости заболеваний».

Также в Уральск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планируется открыть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центры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Один из таких центров появится в Тюме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чтобы открывать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центры на Урале. Мы в любом случае осуществим открытие, в Тюмени уже есть место расположения в большом микрорайоне», — сказал Самкаев.

Без сомнения, Корейский научно-культурный центр имени первого Почет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 Екатеринбурге Станислава Тхая подарит новые перспективы и возможности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корейского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ИА РУСКОР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Чосон синбо»: Пхеньян продолжает добиватьс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должает бороться за воссоединение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 пишет 7 июня японская про-северо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Чосон синбо». Таким образом, были опровергнуты предположения о том, что политика Пхеньяна в отношении воссоединения Кореи изменилась. Они были вызваны тем, что на съезде Трудов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состоявшемся в январе, прозвучал термин «существование». В статье, опубликованной «Чосон синбо»,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сильной державы не противоречит борьбе за решение проблем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В ней также говорится, что «непрерывающееся укрепление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и страны служит практическим средством сдержива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сил, главных виновников раскола и войны, а также ускорения воссоединения». В стать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что сильная обороноспособность призвана гарантировать стабильность и мир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тражая «непоколебимую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Пхеньяна воссоединению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При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о совместных военных учениях РК-США необходима «максимальная гибкость»

При решении вопроса о проведении совместных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х военных учений, намеченных на август, необходима «максимальная гибкость». Об этом заявил 6 июня в телепрограмме KBS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Ли Ин Ён. Он подчеркнул, что учения не должны привести к росту напряжённост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собенно в то время, когда сформировалась новая политика США в отношении Пхеньяна, а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заявляют о готовности к диалогу с Севером. Кроме того, должны быть учтены такие факторы как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и подготовка к передаче Сеулу оперативно-контроля над своими войсками. «Наш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проводить политику с максимальной гибкостью, и я также надеюсь, что Северная Корея проявит гибкость», - отметил Ли Ин Ён. Пхеньян уже давно осуждает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РК и США, называя их репетицией вторжения на Север.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Сеул и Вашингтон отменили или сократили некоторые учения как из-за пандемии, так и в рамках усилий,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сохранение мира в регионе. Ли Ин Ён призвал проявить гибкость при применении санкций в качестве катализатора, чтобы вернуть Северную Корею за стол переговоров. По его мнению, санкции могут быть ослаблены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в отношении таких секторов как железные и автомобильные дороги,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хода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Президент РК извинился за жестокую «армейскую культуру»

«Мне очень жаль, что жестокая «армейская культура» привела к трагической и несправедливой смерти», - заяви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ступая 6 июня на церемонии по случаю Дня памяти павших воинов, состоявшейся на Национальном кладбище в Сеуле.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привёл конкретных фактов, но, по общему мнению, он тем самым принёс публичные извинения за недавнюю смерть женщины-сержанта ВВС, которая подверглась сексуальному насилию со стороны своего коллеги и после этого покончила с собой. Несмотря на поданную жалобу, не было принято должных мер по её защите, и не проведено расследование. Более того, командование ВВС попыталось скрыть факт грубого нарушения дисциплины. Мун Чжэ Ин напомнил также сообщения СМИ о плохом питании солдат. Он пообещал приложить усилия для решения этой проблемы как с точки зрения прав солдат, так и с точки зрения их морального духа и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защищать права человека и повседневную жизнь тех, кто посвящает себя делу защиты народа. По окончании церемонии он посетил поминальный алтарь погибшей женщины-военнослужащего в госпитале ВВС в Соннаме и встретился с членами её семьи. Президент призвал провести тщательное расследование дела и поручил министру обороны Со Уку, который сопровождал его, провести реформу «арм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4 июня генерал Ли Сон Ён заявил об уходе в отставку с должности начальника штаб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ВВС, взяв на себя вину за самоубийство женщины-сержанта.

Иностранцы продали в мае южнокорейские акции на 10,1 трлн вон

Как сообщили 7 июня в комитете финансового контроля, в мае иностранцы продали ак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их компаний на сумму 10 трлн 100 млрд вон (9 млрд долларов). Около трети всех проданных акций составила доля американских инвесторо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мая, иностранным инвесторам принадлежали акции на сумму 820 трлн 200 млрд вон (738 млрд долларо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30,1% рыночной капитализации страны. В прошлом месяце иностранцы купили акции на сумму 5,5 трлн вон (4 млрд 950 млн долларов). (RKI)

Путин рассказал, как решить проблему ядерной программы КНДР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считает, что достигнуть договоренностей с Пхеньяном по поводу разработок ядерного оружия можно не путем санкций и удушения, а через создание гарантий безопасности для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информагентств на полях ПМЭФ, российский лидер отметил, что в Москве понимают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Сеула ядерными разработками северного соседа. "Мы категорически против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я по планете оружия массового уничтожения, об этом знают в том числе и наши друзья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и", - сказал он.

"Но вместе с тем хотел бы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на то, что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строится не способом удушения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или дальнейших санкций в отношении этой страны, а наоборот - способом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которые гарантировали бы безопас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 уверен Владимир Путин. Только в этом случае можно добиться результата, добавил он.

Президент РФ напомнил, что попытки наладить уважительный диалог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предпринимались в прошлые годы и приводили к положительной реакции Пхеньяна. "Но, к сожалению, потом партнеры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режде всего - американские, отход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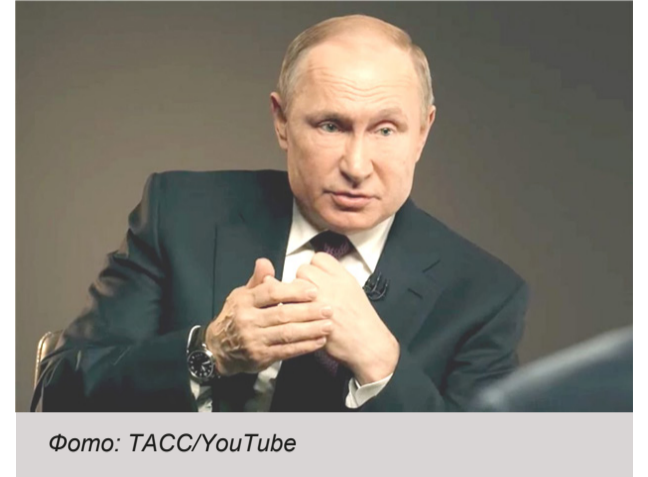


Фото: TACC/YouTube

ли от ранее взятых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 и это вызвало новый виток напряженности", - подчеркнул Путин. Он надеется, что заинтересованные стороны вместе с Россией, найдут оптимальное реше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в том числе через многосторонние форматы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РК впервые представила отечественную космическую ракету

1 июня в РК была представлена полностью отечественная космическая ракета «Нурихо», испытательный запуск которой запланирован на октябрь этого года. В 2010 году на её разработку было выделено 2 трлн вон (1 млрд 800 млн долларов). В 2013 году РК успешно запустила ракету «Нарохо», первая ступень которой была построена в России. Полностью собранная испытательная модель ракеты «Нурихо» установлена на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е в Космическом центре «Наро» в уезде Кохы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где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будут проходить испытания. Они включают заправку топливных баков и отделение от стартовой площадк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троится лётная модель ракеты, которая будет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для запуска. Как уточнили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науки и информационно-коммуник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третья ступень ракеты полностью готова, а первые две

строются. Ракета «Нурихо» снабжена жидкостными двигателями - четырьмя 75-тонными на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одним 75-тонным на второй ступени и одним 7-тонным на третьей ступени. 200-тонная ракета, которая сможет транспортировать в космос спутник весом 1,5 тонны, будет запущена в октябре с макетом полезной нагрузки, а в мае будущего года выведет на орбиту 200-килограммовый спутник. 25 марта в уезде Кохын-гун провинции Чолла-Намдо состоялись успешные испытания основных двигателей первой ступени. За ними наблюдал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отмет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будет активно поддерживать косми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в том числе, разработку первого лунного орбита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К 2030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совершить полёт на Луну с помощью собственной ракеты.

KBS World

74% работающих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трудятся, чтобы покрыть расходы на жизнь

74% работающих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вынуждены трудиться ради покрытия повседневных расходов.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результаты опроса, котор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 проводит каждые три года для выяснения ситуаци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старшего поколения. Сотрудники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 период с марта по декабрь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просили 10.097 человек в возрасте старше 65 лет. Согласно результатам опроса,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7 июня, в частности, уровень экономической активности пожилых людей в возрасте от 65 до 69 лет составляет 55,1%. В 2008 году, когда проводился первый опрос, данный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л 39,9%. Что касается видов занятости, то простую работу выполня-

ли 48,7% опрошенных, в сферах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и рыболовства трудились 13,5%, в сфере услуг - 12,2%. Среднегодовой доход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вырос с 7 млн вон в 2008 году до 15 млн 580 тыс. вон в прошлом году, то есть, более чем вдвое. 73,9% работающих пожилых корейцев сказали, что работают ради того, чтобы их жизнь была более комфортной. Доля желающих жить со своими детьми уменьшилась с 32,5% в 2008 году до 12,8% в прошлом году. 49,3% опрошенных отметили, что у них хорошее здоровье. Только 13,5% когда-либо испытывали симптомы депрессии. Погрешность при обработке данных составляет ±1% при уровне достоверности 95%.

KBS World

"Полигранд"

Партнер,
созданный для Вас!

Тел.: 42-49-54, 42-49-89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Началась подписка на 2-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2-е полугодие — 549 руб. 3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Южно-Сахалинск будет включен в список городов - участников проекта «Чистый воздух»

Петербург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форум стал местом подписания меморандума о взаимодействии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ой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природопользования.

– Южно-Сахалинск – самый большой город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Здесь же сосредоточена основная масса автотранспорта и предприятий. Поэтому и проблема качества атмосферного воздуха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ощущается наиболее остро. Мы активно работаем над ее решением. Благодаря подписанию совместного меморандума с Росприроднадзором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танет участником федер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Чистый воздух». На его территории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система квотирования загрязняющих выбросов, о которой говорил в Послании Президент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Важно, что эта мера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здоровье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о статусом участника проекта «Чистый воздух»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может получать субсидии из федер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на перевод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на экологические виды топлива. Речь идет о строительстве объектов для заправки автомобилей природным газом, установке газ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машинах, а также обеспечении «голубым топливом» жилых домов, частных домовладений и 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троительстве газовых тепловых электростанций и котельных, реконструкции действующих коммун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ласти и Росприроднадзор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здании рабочей группы, которая займется поиском оптимальных путей решения пробле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о словам Светланы Радионовой, Федеральный проект «Чистый воздух» является самой сложной и амбициозной составляющ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я», в процесс его успешной реализации включено множество участников.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пилотным регионом в проведении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эксперимента по углеродн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Он создаст необходимые условия для внедрения технологий, которые способствуют снижению выбросов парниковых газов.

Также в регионе в рамках областной программы «Чистые острова» переводятся на природный газ коммунальные объекты, общественный транспорт и личные автомобили, создаетс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для заправки автомобилей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м топливом и зарядки электрокаров.

Теплоход «Адмирал Невельской» завершил первый регулярный пассажирский рейс

Теплоход проследовал по маршруту Сахалин-Итуруп-Кунашир-Шикотан-Сахалин и накануне причалил в порту Корсакова. Его первыми пассажирами стали почти 50 человек.

Весь путь, включая стоянки на каждом острове, занял 4 суток. Во время стоянок туристы успели посмотреть основные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и: оздоровительные водные комплексы «Ванночки» и «Жаркие воды», смотровую площадку в Китовом, Белые скалы, вулкан Баранского на Итурупе, останец «Чёртов палец», краеведческий музей, терма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в селе Горячий Пляж на Кунашире, мыс Край света, бухту Солдатскую, действующий с 1943 года маяк на Шикотане и другие.

– Я впервые попал на Курилы морским путем, а не воздушным. И в этом есть своя романтика: невероятные закаты и рассветы, которые можно наблюдать на палубе, красота моря, шикарные виды, когда приближаешься к островам, возможность за время поездки посетить сразу несколько островов. Радует, что теплоход новый, уютный, а экипаж вежливый, – поделил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сахалинец Александр Падалка.

На теплоходе созданы комфортные условия для пассажиров: двух- и четырехместные каюты оснащены санузлами с душевыми, в каждой из них есть вместительные шкафы и телевизоры, откидные столики.

На судне работает кафе, пассажирам предлагают трехразовое питание. Также есть бар, где можно приобрести безалкогольные напитки, чай, кофе, свежую выпечку.

В круглосуточном режиме на судне дежурят борТПпроводники. Для Юлии Уваровой море – второй дом. На теплоходе она работает более 16 лет. Ходила на «Марине Цветаевой», затем на «Игоре Фархутдинове», а теперь несет вахту на «Адмирале Невельском», куда ее отобрали как одного из самых опытных сотрудников.

– Чувствую гордость, что стала первым экипажем нового теплохода. Работать, конечно, одно удовольствие. Все новое, условия комфортные, пассажиры довольны. В основном, по данному маршруту путешествуют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военные, н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чень много туристов, которые уже были или только хотят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островами, – рассказала старший борТПпроводник Юлия Уварова.

Приобрести билеты на судно можно одним из трех способов: в кассе АО «Сахалинлизингфлот» по адресу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лица Амурская, 62, на сайте gbus.ru или на судне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перед рейсом. Поездка в каюте минимальной категории обойдется в 3600 рублей, если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услугой по приобретению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ый сервис. Если покупать билет в кассе перевозчика, то цена составит 3255 рублей.

Напомн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ожидается выход на линию еще одного современного судна – «Павел Леонов»,

его прибытие на Сахалин планируется в июле-августе. Оба судна вместимостью 140 пассажиров построены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на Невском судостроительно-судоремонтном заводе.

Останки трех советских и двух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обнаружили поисковики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На Сахалине подвели итоги Второй Межрегиональной поисковой экспедиц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Она проходила с 24 мая по 4 июня в Смирныховском районе и объединила более 40 участников из 18 регионов.

В течение двух недель поисковики работали между селами Рошино и Победино. В результате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3 советских бойцов, предположительно из 157 стрелкового полка, который наступал в районе сопки Плоская и Длинная 17 августа 1945 года. Имена воинов установить не удалось. Торжественное захоронение останков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22 июня в селе Победино.

Также в ходе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были обнаружены останки двух японских солдат. При одном из них нашелся личный опознавательный зна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станки будут переданы японской стороне.

Наряду с полевыми работами для поисковиков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курс лекций и практических занятий на темы: антропология, обмундирование и амуниция японской императорской армии, оказание первой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техника и правила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поисковых работ.

Межрегиональная поисковая экспедиция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фронт»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исковым движением России»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регион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молодежи 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Смирныхо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величат объемы ввода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Жителям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ежегодно предоставляют в аренду новы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квартиры общей площадью около 8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лагодаря меморандуму о намерениях, заключенному между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акционерным обществом ДОМ.РФ в рамка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объем ввода арендного жилья увеличится на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в год.

– Мы стремимся использо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сти для решения жилищной проблемы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ы. Пока у человека нет крыши над головой, он не может всерьез думать о том, чтобы создать семью, завести детей, пустить корни. Арендное жилье, которое появится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благодаря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ахалинских властей и ДОМ.РФ, будет обходиться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гораздо дешевле коммерческого. Это выход, для тех, кто пока не может себе позволить ипотеку,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роект может стартовать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По итогам реализации первого этапа на 50 тысяч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более 800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а смогут улучшить свои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 врачи, учителя и другие специалисты, востребованные здесь. Кроме того, арендный фонд может быть использован для расселения аварийного жилья, – рас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ДОМ.РФ Виталий Мутко.

Соглашение позволит увеличить объемы жилищно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а, улучшить жилищные условия населения, в том числе 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льготных категорий, а также привлечь в регион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Сахалинский опыт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будут перенимать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полях XXIV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онда «Стратегия будущего» Станислав Неверов подписал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ее соглашение.

Документ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при реализации совместных цифровых проектов и проектов в сфере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Фонд «Стратегия будущего», в частности, планирует тиражировать прорывной опыт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по проекту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Стороны займутся развитием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Эта работа призвана повысить эффективность обратной связи с жителями и улучшить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льгот и мер поддержки.

–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йчас активно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ект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Она объединяет в себе банковскую, социальную и транспортную карты, открывает доступ 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и муниципальным услугам, мерам социальной поддержки, позволяет получать скидки в кафе, магазинах, аптеках. Оформить ее смогут все жители региона – от школьников до пенсионеров. Мы готовы поделиться нашим опытом и помогать развивать подобные проекты в других регионах,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о словам Станислава Неверова,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проекта по выпуску единых кар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позволит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предоставляемых услуг в цифровом виде, а также внесет существенный вклад в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енных Владимиром Путиным задач стратег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траны.

– Для нас как не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чень важно не просто констатировать наличие диалога власти и бизнеса. Особый интерес представляют совместные кейсы в сфере цифров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 в этой части, безусловно,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лидеров, что позволяет внедрять его лучшие практики на других территориях, – отметил гендиректор фонда.

Фонд «Стратегия будущего» –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созданная в поддержку реализации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и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задача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24 года». Фонд реализует проекты в области устойчивого развития,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правового просвещения, охраны окружающей среды и экологии.

Новый глубоководный порт появится на восточном побережье Сахалина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одписано в рамках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одписи под документом постави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грузовой район» Алексей Ферт.

– Речь идет об инвестициях в десятки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это очень позитивное событие. Новый порт – это масштабная стройка, крупный транспортный узел. В результате будут созданы сотни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появятся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источники бюджетных поступлений, – сказал глава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решени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и, которое утвердил Михаил Мишустин,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грузовой район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в заливе Терпения Охотского мор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села Новое Макаровского района. На первом этапе терминал в год будет обрабатывать 5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угля, 2,8 миллиона тонн газового конденсата, 5,5 миллиона тонн нефти.

– Новый порт окажет серьезное положительное влияние на экономик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этому мы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егиона поможет нам преодолеть различные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появится более 400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при наборе персонала предпочтение будет отдаваться жителям области, которые обладают необходимыми компетенциями,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мпании «Много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грузовой район» Алексей Ферт.

На будущий объект будет распространен льготный режим налогообложения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которую планируется расширить.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Газпром» ведут работу по газификации региона

В план на 2021 год включены десятки объектов, в том числе газопроводы-отводы и газораспределительные станции, межпоселковые газопроводы,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жителей региона экологичным энергоресурсом. Этот вопрос стал одним из ключевых на встрече губернатора Ва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ления ПАО «Газпром» Алексеем Миллером.

– Согласно принятой программе обеспечить стопроцентную технически возможную газификацию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ланируется в 2025 году. Для нашего региона это очень важная задача. Переход на газ позволит улучшить экологию на островах, а значит и сохранить здоровье людей. Природный газ необходимо доводить до каждого дома, до каждого предприятия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должны дышать чистым воздухом, а не копотью от угля и мазута. Кроме того, газификация даст серьез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эффект. У жителей и предприятий области значительно сократятся расходы на энергопотребление. Развитая газов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также позволит привлечь инвесторов на острова, что даст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стимул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созданию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а значит и повышению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тороны отметили,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будет введена вторая очередь газопровода «Восточный», что позволит обеспечить газом южную часть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Также в этом году планируется завершить строительные работы по ГРС «Корсаков», которая обеспечит голубым топливом Корсаковский район, первым потребителем станет новая газовая котельная.

Кроме того, сторон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строительства социальных объектов, реализуемых совместно с ПАО «Газпром».

Также в ходе встречи рассмотрены перспективы создания и развития в регионе водородного кластера.

Напомним, с 2022 года на территории региона планируется реализовать эксперимент по углеродному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ля достижения углеродной нейтральности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опрос производства и применения водорода. Учитывая запасы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и уникальное географическое расположение региона (близость к потребителям АТЭ)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дорода в объеме 30 тысяч тонн в год планируется размести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в проект предварительно оценивается свыше 15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보도자료>

KBS 한민족방송,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실시

사할린동포, 중국동포, 고려인 동포 대상

KBS 한민족방송(사회공헌방송부 황형선 부장)이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해 CIS지역과 러시아(사할린) 등에 사는 북방동포들을 대상으로 한민족 체험수기를 공모한다.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는 1998년부터 이어져 온 KBS 한민족방송의 대표적인 사업이다.

올해 23회째를 맞는 한민족 체험 수기에는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한 체험담, 그리고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과 영상을 담으면 한다.

글은 청소년과 성인 부문으로 나뉘며 영상은 별도로 한민족상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응모 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글은 A4 용지 3~10장 내외, 영상 콘텐츠는 5분~10분 내외이다.

KBS 한민족방송의 '2021년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게시판이나 이메일(972khz@kbs.co.kr), 우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으로 응시할 수 있다.

수상작은 10월 9일 KBS 한민족방송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에서 발표한다.

청소년 부문은 대상 1명·우수상 2명·장려상 3명, 성인 부문은 대상 1명, 우수상 9명·지도교원상 2명, 단체상은 한민족의 문화와 우리말 보급에 앞장선 학교나 단체에, 한민족상(영상 부문)은 2명에게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KBS 한민족방송 홈페이지(<https://radio.kb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서는 사할린 동포가 3명이나 수상을 했다. 한국에 영주귀국해서 살고 있는 박승의(前 사할린 국립대 교수)씨의 <가라후토로 팔려간 이쁜 고모>, 공노원(사할린한국어교원협회 부회장)씨의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국어 교육의 리더>가 한민족상을 받았으며, 러시아 사할린 홈스키 주 코스타 학생의 <저는 주 코스타입니다.>가 청소년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KBS 사회공헌방송부 황형선 부장은 "지난해 한류 수교 30주년을 기념해 '한민족상'을 신설했는데 사할린동포들이 수상해 의미가 있었으며 사할린동포 4세인 주 코스타 학생이 장려상까지 받아 뜻깊었다. 올해는 더 많은 사할린동포들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1년 KBS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동포 여러분들의 생활 속 이야기를 보내주세요!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 그리고 한류와 한글에 대한 동포 여러분의 생각을 담은 글과 경험을 담은 영상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공모분야

- 한민족의 정체성 확립과 우리말 보존을 위한 체험담
- 한류와 한글에 대한 생각을 담은 글과 경험을 담은 영상

작품분량

- 200자 원고지 20매 (A4 3장~10장) 내외
- 영상 콘텐츠 5분~10분 내외

접수

- 2021년 5월24일(월) ~ 9월 24일(금)

수상작 발표

- 2021년 10월9일(토) • 방송안내 및 개별통지

시상일정 및 장소

- 시상일정 및 장소는 10월9일 수상자 발표와 함께 안내

접수처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2021 한민족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앞 (우) 07232
- email : 972khz@kbs.co.kr

시상내역 (22명)

- **성인부문**
대상 1명 : 상금 70만원 및 상패
우수상 9명 : 상금 30만원 및 상패
- **청소년 부문**
대상 1명 : 상금 50만원 및 상패
우수상 2명 : 상금 30만원 및 상패
장려상 3명 : 상금 20만원 및 상패
- **지도교원상**
지도교원 2명 : 상금 각 20만원 및 상패
- **단체상**
학교, 기관 및 단체 (대표 1명)
: 상금 70만원 및 상패
- **공로상**
기관 및 단체 대표 1명 : 공로패
- **한민족상 (*영상부문)**
우수상 2명 : 상금 30만원 및 상패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Уважаемые читатели!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едлагает печатные площадки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рекламы, объявлений 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онт. телефон 43-59-80, 43-72-94.

Адрес эл. почты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вошла в десятку самых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для инвесторов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 2020 году занимавший 30-ую строчку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рейтинге состояния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климата, поднялся на восьмую позицию. Результаты усилий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по созданию условий для бизнеса озвучены в ходе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 Принципиально важно, что в основе рейтинга Агентства стратегических инициатив, – мнения не чиновников, но сами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Рывок, который совершил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 подтверждение, что мы правильно организовали работу по созданию 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и делового климата для бизнеса. Важнейшее условие успеха на этом направлении – взаимное доверие между властью 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ьским сообществом, – сказа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создан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совет и ряд рабочих групп по вопросам бизнеса, которыми вместе руководя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власти и деловых общественных объединений. На заседаниях этих органов в режиме «свободного микрофона» открыто обсуждаются все проблемы, мешающие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проектов.

В регионе внедрены в практику новые инструменты управления бизнес-процессами. В школе заказчика свои знания совершенствуют специалисты строительных компаний. Деятельность областного операционного центра позволяет отслеживать возможные риски при реализаци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и своевременно обеспечивать их инфраструктурой и земельными участками.

Сервисы для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переходят в цифровую среду. Интерактивная платформа «Бизнес. Сахалин. Онлайн» является своеобразной «книгой жалоб». Обращение сразу попадает к региональному уполномоченному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Вопрос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течение 10 дней и решение, как правило, оказывается положительным.

На базе областного портала госуслуг по принципу «единого окна» бизнесмены могут пройти пять наиболее востребованных процедур в сфере строительства: от предоставления земли до ввода здания в эксплуатацию.

Региональная инвестиционная карта в сети Интернет содержит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едлагаемых 500 инве-

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ах, транспортной и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е, перспективных строительных площадках и земельных участках.

Сахалин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развитию человеческого капитала по заказам инвесторов организует подготовку и переподготовку кадров по стандартам Ворлдскиллс.

– Каждое из этих решений,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может показаться малозначительным. Но вместе они способны дать очень серьезный эффект. В 2020 году пандемия коронавируса, колебания цен на углеводороды на мировом рынке привели к снижению инвестиций в основной отрасли экономики области – нефтегазовой. Это был удар. Но на этом фоне на 2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ырос объем вложений, не связанных с добычей углеводородов. Доля несырьевого сектора в общем объеме инвестиций поднялась с 33,9 процента в 2019 году до 48,4 процента в 2020 году.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я считаю, за счет доверия бизнеса к властя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а также мер поддержки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подчеркн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традиционно является сырьевым регионом. В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ласти активно занимаются развитием несырьевых отраслей. Совместно с бизнес-структурами разработана пятилетняя программа диверсификации экономики. Общий объем инвестиций – свыше 80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В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строительной индустрии, энергетике, транспортной сфере, туризме предполагается создать 11 тысяч рабочих мест.

Сбер присоединился к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В рамках XXIV 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форум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Сбер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области новых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Документ подписали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и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Сбербанка Кирилл Царёв.

В рамках соглашения стороны намерены сотрудничать в части внедрения и развити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овых цифр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Ф» и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ых систем, направленных на повышение

эффективн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и контроля исполнения задач. В частности, речь идёт об участии банка в проекте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 Сегодня островному региону нужны современные механизмы и инструменты, которые обеспечат высокие темпы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оста и развития социальной сферы. Большие перспективы открывает трансформация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роекта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 отм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Недавно мы начали обеспечив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незащищен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специальными картами, которые дают возможность бесплатно посещать киносеансы, спектак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скидками в магазинах и аптеках. А сегодня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уже стала «банковской». На нее можно перечислять деньги для оплаты покупок. Мы приветствуем присоединение Сбера к проекту «Единая карта сахалинца». Цель проекта – повысить качество жизн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а также сделать услуги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для них. Попутно мы решаем задачу по оптимизации затрат на оказание услуг, в том числе социальных, для все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е решения, разработанные в Сбере, уже работают во многих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ах. Благодаря им граждане получают быстрый доступ к разнообразному спектру госуслуг, могут оперативно оформить ту или иную госвыплату, – в свою очередь, сказал Кирилл Царёв,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ления Сбербанка. – Для региональных властей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повышают возможности управления, мониторинга и экономии бюджетных средств. Мы рады, чт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тала еще одним партнером Сбера на большом пути цифровизации российских регионов.

Отметим, ПАО Сбербанк сегодня – один из крупнейших банков в России и один из ведущих глобальных финансовых институтов. На его долю приходится около трети активов всего российского банковского сектора. Сбербанк является ключевым кредитором для национальной экономики и занимает одну из крупнейших долей на рынке вкладов. Основным акционером ПАО Сбербанк является Российская Федерация в лице Министерства финансов РФ, владеющая 50% уставного капитала ПАО Сбербанк плюс 1 голосующая акц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이모저모

(2면의 계속)

Для записи на тренировку необходимо за день или более написать в инстаграм-аккаунт @sakhmtbe или по номеру 8963-289-28-95. В дни соревнований или мероприятий открытые тренировки не проводятся.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размещена на странице клуба.

어떤 화폐가 가장 효율적인가

달러화 가치 하락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어떤 화폐로 저축을 유지하는 것이 더 수익성이 있는지 궁금해하고 있다. 6월 6일 일요일, '모스크바 금융분석'그룹의 분석가 안드레이 마슬로브는 달러 대신 대안을 선택할 때 어떤 점에 주목해야 하는지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저축을 위해서는 천연자원에 의존하지 않는 선진국의 통화를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며 "루블리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안정적이어야 한다"고 '이즈베스티아'에서 밝혔다.

안드레이 마슬로브는 세계의 통화를 추천했다.

첫번째로, 루블리 대비 환율이 판데믹 초기부터 17.5% 상승한 유로이다. EU 국가들에서 대대적으로 실시된 백신접종으로 정치·사회 제도가 안정화되어 투자자들에게 유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두번째로는 영국 파운드화이다. 판데믹 기간에 루블리화 대비 파운드화의 성장은 17.76%였다. 안드레이 마슬로브에 따르면, 이는 영국의 입증된 경제력 덕분이다.

세번째로 중립적이고 안정된 나라로 인정받은 스위스의 프랑이다.

그리고 안드레이 마슬로브는 중국 위안화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제안했다. 판데믹 시작 이후 위안 환율은 루블리 대비 17% 올랐다.

В какой валюте лучше хранить сбережения

На фоне падения доллара все больше инвесторов задумываются, в какой валюте выгоднее хранить сбережения. Аналитик ГК «ФИНАМ» Андрей Маслов в воскресенье, 6 июня, объяснил, на какие моменты при выборе альтернативы доллару стоит обратить внимание.

По мнению эксперта, для сбережений лучше всего выбирать валюту развитой нересурсозависимой страны. Кроме того, валюта должна укреплятьс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ублю и быть достаточно стабильной, пишут «Известия».

Аналитик выделил три валюты.

Во-первых, евро, курс которого с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относительно рубля поднялся на 17,5 %. Сделать это помогла вакцинация населения в странах Евросоюза. Положительно отражаются на европейской валюте и привлекательность региона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за счет развит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и социальных институтов.

Во-вторых, фунт стерлингов. Рост фунта относительно рубля за год пандемии составил 17,76 %. По словам Маслова, это происходит за счет проверенного годами запаса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рочности Великобритании.

В-третьих, это швейцарский франк как валюта нейтральной и стабильной страны.

И наконец, специалист предложил задуматься о вложениях в китайский юань. С момента начала пандемии курс юаня по отношению к рублю вырос на 17 %.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본사는 뒤늦게 슬픈 비보를 접하였습니다. 1975년-1982년 간 <레닌의 길로> 신문사(현 새고려신문사) 기자로 활약하신 조상찬 선생님이 2021년 5월 31일 97세를 일기로 안산에서 별세하였음을 전합니다. 비애에 젖은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현직 사원 일동

새고려신문사 전 직원 박춘기 씨의 모친 유정희 씨가 2021년 6월 4일 92세를 일기로 사망하였음을 부고하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새고려신문사 전·현직 사원 일동

Реклама

SAKH.COM • КРАСОТА И ЗДОРОВЬЕ

Попасть к врачу просто!

Врачи:

- Терапевт
- Гастроэнтеролог
- Хирург
- Невролог
- Гепатолог
- Эндокринолог

А также:

- Анализы
- МРТ
- Узи
- Рентген



Запишитесь на прием
med.sakh.com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야</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 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